

2019년도 경찰간부 한국사 문제 해설

경찰간부단기 한국사 강사 배담덕

1. 단원별 출제 빈도

단원	출제 문제수	문제의 내용
I. 한국사 서론	2문제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II. 선사~초기국가	2문제	고조선, 부여
III. 고대사-6문제		
1. 정치사	2문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발해사 통합(2문제)
2. 경제사	1문제	통일신라의 대외무역
3. 사회사		
4. 문화사	3문제	고대 문화 종합, 미륵사지 석탑, 의상
IV. 고려사-5문제		
1. 정치사	4문제	지역 고르기(서경), 무신정변기 사건순서, 고려사 통합, 왜구의 침입
2. 경제사		
3. 사회사		
4. 문화사	1문제	고려사 통합(역사서)
V. 조선사-10문제		
1. 정치사	2문제	붕당 정치의 형성, 성종의 업적
2. 경제사	3문제	과전법과 전시과, 조선 후기의 경제 활동, 대동법
3. 사회사	3문제	조선의 법전, 조선 전기 향촌 질서,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
4. 문화사	2문제	성리학의 흐름, 이익의 활동
V. 근대사	4문제	3.1 운동, 근대 교육과 국어연구, 2차 갑오개혁, 근대 문물 사건 순서
VI. 일제시대사	3문제	신간회, 임시정부 순서, 인물사 통합(안중근)
VII. 현대사	7문제	모스크바 3상회의, 제헌의회, 김영삼 정부 시기 고르기, 1950년대의 정치와 사회, 통일 정책, 개헌과 현대사 통합, 통일 정책과 현대사 통합

2. 총평

- ① 경간부 한국사 문제로 2019년도 문제가 역대급으로 기억될 듯 싶다. 특히 틀린 것 혹은 맞는 것 모두 고르기 문제에서 어려운 선지 2개 이상이 나오면 속수 무책인데 이번 연도 문제가 그러하다. 7번 미륵사지 석탑 문제, 14번 고려사 모두 고르기(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 오답 가능성 있음), 18번 고려 시대 역사서(속편년통제, 해동비록, 본조편년강목) 문제, 30번 근대사 인물 고르기(안중근과 윤희순 등, 오답 가능성 있음) 문제, 39번 개헌 시기 시대 고르기 문제(오답 가능성 높음), 40번 문제(기본합의서와 6.15 사이 사건 고르기)가 특히 어려웠던 것 같다.
- ② 보통 4문제 정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어렵게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답 가능성이 있어서 헛갈리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정리해 보니, 무려 6문제였다. 또한 나머지 문제도 만만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 시간내에 문제를 풀기도 어려워 2중고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다.

1.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연장자가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나. 구석기 시대에는 방추차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다. 구석기 시대에는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났다.
 라. 신석기 시대에는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마.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③ / 난이도 중

가-구석기와 신석기의 선사 시대에는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권력자의 등장은 청동기 시대). 마-신석기 시대 반 지하의 움집은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주로 보온성을 위해 남향집의 형태가 많이 제작되었다.

<문제해설>

나-방추차(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의 도구이다.

다-영혼 숭배(애니미즘) 및 조상숭배 등의 원시 신앙이 등장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이다.

라-벼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마-마을 주위에 목책이나 도랑(환호)을 만들었던 것은 부족간에 전쟁이 활발했던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2. 청동기·철기 시대의 모습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고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평등 사회였다.
- ②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 ③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 ④ 무기가 청동기나 철제로 바뀌게 되었다.

① / 난이도 하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고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평등 사회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청동기 시대에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고, 정복 전쟁의 결과 국가가 성립하기 시작하였다.

3.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제음주동국사략」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 ②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 ③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 ④ 요서 지방을 경계로 대립했던 연나라의 잇단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④ / 난이도 하

① 조선 중기에 유희령이 동국통감을 축약해 단군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정리하여 「표제음주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16세기 중반).

②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주변 부족을 통합하면서 한반도(대동강 유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③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부왕(否王), 준왕(準王)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고, 그 밑에 대부(大夫), 박사(博士) 등의 관직을 두었다.

<문제해설>

④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한나라(한무제)의 침공에 의한 것이다.

4. (가)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에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천 리쯤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읍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사방 2천 리가 되며 호수는 8만이다.

-삼국지 동이전-

- ①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의 관리가 있었다.
- ② 소도라는 별읍에는 도망가가 들어가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 ③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와 말 등으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 ④ 어린 신부를 맞이하여 장성하면 아내로 삼는 민며느리제도가 있었다.

① / 난이도 중

선비족과 서쪽이 접해있고(부여는 3~4세기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됨) 남쪽에 고구려가 위치했다는 표현을 통해 이 나라는 부여임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는 왕은 수도를 다스리고,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저가·구가의 대가(大加)들이 독자적인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문제해설>

① 삼한, ③ 동예, ④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5. 통일 신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시 울산항은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여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였다.
- ② 당으로 가는 바닷길에는 통일 전부터 이용하던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는 길이 있었다.
- ③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은 당시 당나라와 일본, 그리고 한반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 ④ 당나라와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산둥반도, 양쯔강 하류, 발해만 북안 일대에는 신라인들의 마을인 신라원이 곳곳에 형성되었다.

④ / 난이도 중

통일신라 시대에 당과의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산둥 반도와 양쯔강 하구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법화원이 대표적)이 만들어졌다.

<문제해설>

- ④ 신라인의 마을은 신라원이 아니라 신라방이라고 해야 옳다.

6.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의 문화는 일본 야마토 조정과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 ② 고구려의 오골성은 졸본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다.
- ③ 돌무지덧널 무덤은 구조상 널방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다.
- ④ 백제의 가요 정읍사(井邑詞)는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현재 전한다.

② / 난이도 중

①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 나라 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飛鳥)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③ 돌무지덧널 무덤은 구조상 벽화를 그릴 수가 없지만 굴식돌방 무덤에는 널방이 있어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 ④ 조선 성종의 왕명으로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한 책이었다. 악학궤범에는 정읍사, 처용가, 동동, 여민락 등 삼국시대~조선시대의 노래 가사가 실려져 있다.

<문제해설>

- ② 고구려의 첫번째 수도인 졸본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된 것은 오녀산성이다. 오골성은 압록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구려의 압록강 방어의 핵심 군사 지역이었다. 고구려 부흥 운동 시기에 고연무는 요동의 오골성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였다.

7. 다음 유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현존 최고(最古)의 석탑이다.
 나. 국보 제9호이며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다.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이다.
 라.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세긴 것으로 유명하다.
 마. 2009년 보수 정비 작업 중에 금제사리봉안기를 발견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③ / 난이도 상

제시된 유물은 익산에 소재한 백제 미륵사지 석탑(서탑)이다. 가-미륵사지 석탑은 7세기 초반(639년) 무왕 때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마-2009년 보수 정비 중에 탑 내부에서 금제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와 함께 금동제 사리의외호(金銅製舍利外壺), 금제사리내호(金製舍利內壺)를 비롯해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 6점 등이 발견되었다.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진 '금제사리봉영기'에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회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해설>

나-미륵사지 석탑은 목조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석탑으로 평가받지만 국보 제11호 이다(국보 9호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임).

다-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은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라-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들을 세긴 것으로 유명한 것은 신라 하대에 조성된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다.

8. 7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라)의 사실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신라군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하여 백제군과 싸웠고 신라의 관창이 전사하였다.
나. 백제 장군 윤충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도독인 김품석과 그의 부인인 김춘추의 딸을 죽였다.
다. 백제를 지원하였던 일본의 수군이 당군에게 크게 패하자 백제왕 풍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라.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신라로 투항하였다.

- ① 가-나-다-라
- ② 나-가-다-라
- ③ 라-다-나-가
- ④ 나-가-라-다

② / 난이도 중

나-대야성 전투(642) → 가-황산벌 전투(660) → 다-백강 전투(663) → 라-나당 전쟁 중에 안승이 보덕국왕에 임명(674)

9.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 ① 화엄일승법계도
- ② 해심밀경소
- ③ 십문화쟁론
- ④ 천태사교의

① / 난이도 하

제시문의 승려는 진골 출신으로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당의 침공을 알리기 위해 귀국하여 화엄종을 창시하고 부석사 등을 창건하였던 의상이다. ①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 「백화도량발원문」 등을 저술하였다.

<문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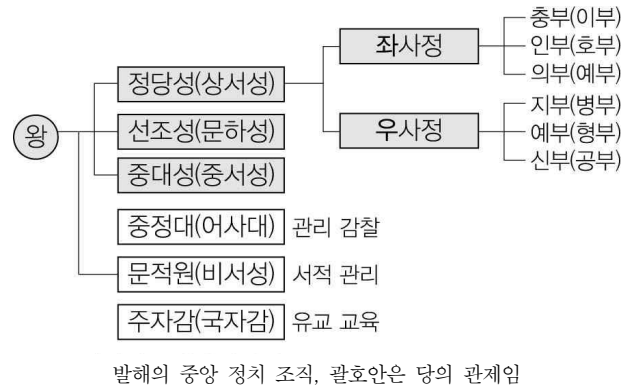
② 원측, ③ 원효, ④ 제관에 대한 설명이다.

10. 발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성 소속의 좌사정은 지·예·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특산물로는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환도의 오얏 등이 있다.
- ③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인이며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다.
- ④ 악기로는 고구려의 거문고를 계승한 발해금(渤海琴)이 있었고 발해의 악기는 송나라의 악기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① / 난이도 중

발해에서는 정당성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11. 발해 시기에 있었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제2대 무왕 대무예는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당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였다.
나. 제3대 문왕 대흠무는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다. 제10대 선왕 대인수는 주변 말갈 세력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라. 제15대 애왕 대인선 대에 거란 야율아보기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④ / 난이도 중

가-8세기 초반 무왕은 흑수 말갈 문제로 당과 대립하여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나-8세기 중후반 문왕은 당이 안·사의 난(755)이 일어나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었기 당의 유화 정책(발해국왕으로 격상)에 호응하여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는 등 체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다-9세기 초반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정복하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요양일대를 장악하는 등 전성기를 이끌었다. 라-10세기 초반 발해의 마지막왕 애왕 때 거란의 태조 야율아보기의 침공으로 수도인 상경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

12. 밑줄 친 ‘이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옳은 것은?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이곳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천도하여 황제를 칭하고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대로 힘들어지자 반란을 일으켰으나 1년 만에 진압되었다.

- ① 이곳의 관리였던 조위충은 무신 정권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② 이곳에서 김윤후가 이끈 군대가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
- ③ 이곳의 만적은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며 신분차별에 항거하였다.
- ④ 몽골이 침입해오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 약 30여 년간 항거하였다.

① / 난이도 중

제시문의 이곳은 고려 시대 3경 중의 하나인 서경 즉 평양이다. ① 초기 무신집권기(이의방 시기)인 1174년에 서경 유수 조위충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지방군과 농민군의 적극적 참여로 3년간이나 항쟁이 지속되었다.

<문제해설>

② 처인성(현재 경기도 용인), ③ 개경, ④ 강화도에 대한 설명이다.

13.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보당의 난
나. 최충현의 ‘봉사 10조’ 건의
다. 정중부의 난
라. 「삼국사기」의 편찬

- ① 라-다-나-가
- ② 라-다-가-나
- ③ 라-나-다-가
- ④ 다-가-나-라

② / 난이도 중상

라-삼국사기 편찬(1145, 묘청의 난 진압 후 인종 때) → 다-정중부의 난(1170, 무신정변 혹은 경인의 난으로 의종 때) → 가-김보당의 난(1173, 이의방 집권기인 명종 때) → 나-봉사 10조(1196, 최충현 집권기인 명종 때)

14.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가.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가 별개로 성립하였다.
나. 혼인 형태는 솔서혼이나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다. 충렬왕 시기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라. 상충 향리인 호장은 중앙의 상서성에서 임명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③ / 난이도 상 ---> 이의 제기 신청

나-고려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결혼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혹은 장인이 사위를 데리고 산다는 의미에서 솔서혼(率婿婚) 등이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다. 라-고려 시대에 최상층 향리 계급인 호장은 중앙의 상서성에서 임명하였다.

<문제해설>

가-골제와 두품제, 즉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로 고려 시대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다-충렬왕 즉위년인 1275년에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였고, 충선왕(1298년 즉위, 1308년 재즉위)이 1298년 즉위할 때 성균감으로 개칭하였다가 1308년 충선왕이 재즉위할 때 충선왕이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학설이다.

※ 고려사 백관지 성균관 조목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충렬왕 24년(1298)에 충선왕(忠宣王)이 성균감(成均監)으로 고쳤는데, 대사성은 정3품으로 올랐으며, 다시 전주를 쾌주로 고치고, 사예를 사예이라고 하였으며, 국자박사를 성균박사(成均博士)로 하였으며, 명경박사(明經博士)와 명경학유(明經學諭)를 더 두었다.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성균관으로 고치고,(이하 생략).”따라서 성균관으로 개칭된 것은 충렬왕이 아니라 충선왕 때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 오류로 2개 혹은 3개가 답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을 통해 게시판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다.

15.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식은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 ② 이이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고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 ③ 이언적은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 ④ 윤휴는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① / 난이도 중

지리산에 은거하였던 학자인 조식은 경(敬)과 의(義)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노장사상에 포용적이었다. 특히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인 북인에서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였는다.

<문제해설>

- ① 성학십도는 이이가 아니라 이황의 저술이다
- ③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던 인물은 주리론의 선구자였던 이언적이 아니라 서경덕이다.
- ④ 성리학을 절대화시켰던 송시열 등의 계열과는 다르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원시 유학에서 중시한 여섯 가지 경전으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등)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이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윤휴와 박세당 등이 대표적인 성리학 상대화 경향의 인물들이다.

1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조령을 넘어 동남쪽으로 바닷가까지 수백 리를 가면 홍해라는 고을이 있다. 땅이 매우 궁벽하고 험하나, 어업, 염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다. 옛날에는 주민이 많았는데 왜란을 만난 이후 점점 줄다가 경신년(1380) 여름에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고을이 함락되고 불탔으며 백성이 살해되고 약탈당해 거의 없어졌다.

-양촌집-

- ①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 ② 삼별초를 설치하여 전투에 대비하였다.
- ③ 이성계가 나하추의 침입을 물리쳤다.
- ④ 화약무기가 진포대첩에서 활용되었다.

④ / 난이도 중

제시문은 우왕 시기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④ 화통도감에서 개발된 화포로 최무선·나세 등이 진포(금강)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1380, 우왕).

<문제해설>

- ① 홍건적, ② 몽골, ③ 몽골(원)과 관련된 지문이다.

17. 조선시대 법전 편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조준은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 ②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된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 ③ 영조 때 조선 후기 사회상을 종합하여 정리한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④ 정조 때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④ / 난이도 중

조선시대 사실상의 마지막 법전이라고 칭할 수 있는 법전은 대전통편이 아니라 홍선대원군 섭정기인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1865)'이다.

18.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서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숙종 때 서공은 「고려도경」을 저술하였다.
- ② 예종 때 홍관은 「속편년통제」를 편찬하였다.
- ③ 인종 때 우리나라 풍수지리서의 각종 비록들을 모은 「해동비록」이 편찬되었다.
- ④ 충렬왕 때 민지는 「본조편년강목」을 편찬하였다.

② / 난이도 상

속편년통제는 고려 예종이 송나라 역사책인 <편년통제>를 읽고 감동받아 홍관에게 명해 편찬케 한 것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래의 사적(史蹟)을 <편년통제>의 체제를 본떠 정리한 역사책이다. <문제해설>

- ① 서공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1123년 인종 때 고려를 방문하고 난 후 고려의 풍속 등을 송의 황제에게 바친 책이다.
- ③ 해동비록은 고려 예종 때 김인준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음양지리도참서였다.
- ④ 본조편년강목은 충숙왕 때 민지가 태조의 증조부 문덕대왕부터 원종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는데, 최초의 강목체 사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분전은 공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전시과는 관료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 ② 전시과 체제에서 민전은 사유지이나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었다.
- ③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 ④ 과전법에서 조세는 1결의 수확량을 200두로 정하고 그 1/10인 20두를 거두었다.

④ / 난이도 중

① 고려 태조 때 공신들에게 공로의 많고 적음과 성행의 선악에 따라 지급하였던 것이 역분전이였다. 또한 전시과는 직역수행자에게 그 직역의 반대 급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던 제도이다. ② 전시과 체제에서 민전은 소유권상으로 보자면 사유지(사전)이지만 수조권 상으로 보면 공전이다. ③ 전시과에서 군인전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반납되어야 하지만, 20살이 지난 아들이 그 직을 계승할 경우 전정연립의 방식으로 토지도 세습된다.

<문제해설>

④ 과전법상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의 10분의 1(최대 30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종 때 제정된 공법상의 조세제도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을 400두로 정하고 수확량의 20분의 1(최대 20두)을 거두었다.

20.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충겸(심의겸의 동생)이 장원 급제를 하여 이조 전랑에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 ① 이를 계기로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분화되었다.
- ② 서인은 치인(治人)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혁을 통한 부국안민을 추구하였고, 동인은 선비들의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어 지배층의 도덕성 제고를 중시하였다.
- ③ 동인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건의한 정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 ④ 이이, 성혼의 문인들은 주기론(主氣論)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④ / 난이도 중

제시문은 김효원 등의 신진 사림(조식·서경덕·이황 학파)과 심의겸 등의 기성 사림(이이·성혼 학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동인과 서인의 봉당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던 ‘을해당론(1575, 선조)’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①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들은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들은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② 주기론을 지지하는 서인은 주로 제도의 개혁(치인)을, 주리론을 지지하는 동인

은 주로 내적인 도덕성의 제고(수기)를 중시하였다. ③ 동인은 정여립의 난으로 촉발된 기축옥사와 이후 정철의 세자 건저의(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는 정철의 주장과 선조의 분노) 문제로 급진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화되었다.

<문제해설>

④ 이이, 성혼의 문인들인 서인들은 양쪽 모두를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반대당인 동인(이후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과 격심하게 대립하였다.

21. 3·1 운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가 있었다.
- ②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대동단결선언, 2·8독립선언 순으로 발표되었다.
- ③ 당시 가장 많이 투옥된 계층은 지식인·청년·학생이 아닌 농민이었다.
- ④ 기미독립선언문의 본문은 최남선이 작성하고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다.

② / 난이도 중

① 1919년 3·1 운동이 전개될 무렵 대한민국민회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3. 15). 또한 필라델피아에서는 미주 지역동포들이 모여 3일간 한인 자유 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선포한 후 악대를 선두로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 행진을 하였다(4. 14). ③ 3·1 운동 수감자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59.1%였고, 학생은 11% 정도였다. ④ 기미독립선언문의 본문은 최남선이 작성하고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다.

<문제해설>

② 대동단결선언(1917. 상하이) → 무오독립선언(1918. 11, 만주) → 2·8독립선언(1919. 도쿄) 순으로 발표된 것이다.

22. 조선 전기(15~16세기) 사람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사례(鄉射禮),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②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다.
- ③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많이 세웠다.
- ④ 향회를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였다.

③ / 난이도 중

③ 조선 후기(18~19)에 기존의 기득권층인 사족 세력인 구향은 촌락 단위의 동약 실시,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통해 향촌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3.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의 명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문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동문선」이라 하고, 지리지를 편찬하여 「동국여지승람」이라 하였으며 또 「삼국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①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무역선은 1년에 50척으로 제한하였다.
- ②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들인 다음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 ③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④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지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② / 난이도 하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삼국사절요, 국조오례의 등은 조선 초기 성종 때 편찬된 것들이다. ② 성종 때 국가가 관리 대신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문제해설>

- ① 세종, ③ 정조, ④ 세조의 업적들이다.

24. 근대 교육과 국어 연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베델은 세계 각국의 산천·풍토 등을 한글로 소개한 「사민필지」를 저술하였다.
- ② 1896년에 설립된 국문 동식회는 최초의 국문 연구회이다.
- ③ 국문 연구소는 주시경, 지석영을 중심으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한글로 발간되면서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① / 난이도 중

② 국문동식회는 주시경 등이 1896년 국문철자법 통일을 위해 정동의 독립신문사 안에 설치하였던 최초의 국어 연구 단체였다. ③ 1907년 학부 산하의 국어 연구소로 설치된 국문연구소는 주시경, 지석영 등이 활동하였다. ④ 1898년에 창간된 순한글의 제국신문과 국한문 혼용(이후 순한글로 발간)의 대한매일신보는 국어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문제해설>

①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풍습, 정치 제도 등을 순한글로 소개한 사민필지는 베델이 아니라 육영공원의 미국인 초빙교사였던 헐버트의 활동이다.

25.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 금(萬金)을 빌리러 왔소.” 하였다. 변씨는 “그러시오.”하고 곧 만 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만 금을 얻어 생각하기를 “저 안성은 기(畿)·호(湖)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귀이다.”하고는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하여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두 배 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지 얼마 아니 되어서 두 배 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치렀다.

-박지원, 「허생전」-

- ① 주로 공인과 사상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②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 ④ 청으로부터는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하였고 일본으로부터는 후추, 황 등을 수입하였다.

② / 난이도 중

제시문은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지원의 허생전의 한 대목이다.

<문제해설>

② 포구의 거래 규모는 장시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주의하자. 이런 이유로 포구에서 부를 축적하였던 대표적 상인인 한강의 경강상인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도고(독점적 대상인)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26.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 ② 광주에 학생항일운동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③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와 의무 교육제를 주장하였다.
- ④ 갑산 화전민 학살사건 진산규명운동과 단천 산림 조합 사건 지원운동을 하였다.

③ / 난이도 중

① 신간회 초대 회장은 민족주의계의 이상재, 부회장은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이후 권동진)가 선출되었다. ②④ 신간회는 1929년에 발생한 원산노동자 총파업, 갑산 화전민 항쟁, 광주 항일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였다.

<문제해설>

③ 신간회에서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 민족 차별적 교육 철폐 등을 주장하였으나 의무 교육 등의 구체적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27.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구가 비밀결사인 한민애국단을 결성하였다.
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다. 민족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라. 임시 의정원에서는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 ① 라-다-가-나
- ② 라-가-다-나
- ③ 다-라-가-나
- ④ 다-라-나-가

③ / 난이도 하

다-국민대표회의 개최(1923) → 라-이승만 탄핵과 박은식 선출(1925) → 가-한민애국단 결성(1931) → 나-한국광복군 창설(1940)

28. 밑줄 친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온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광해군 시기에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1608). 이후 점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다.

- ①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②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 ③ 선혜청은 중앙의 공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유치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 ④ 공인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③ / 난이도 중

제시문은 한백겸, 이원익 등의 건의로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대동법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① 가호별로 납부되던 공납이 토지 1결당 미곡 12두 정도로 납부되어 공납의 전세화가 진행된 것이다. ② 상공은 대동법에 의해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되었으나 상공 이외의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납부되어야 했다. ④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왕실, 중앙과 지방 관청의 필요 물품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공인이란 어용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貢價)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문제해설>

③ 시간이 지날수록 선혜청은 중앙 정부 재정 악화로 중앙의 공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상납미의 확보에 주력하게 되자, 이에 비례하여 지방 관아에서 보관하는 유치미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방 수령 및 아전들은 유치미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농민 수탈이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9.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조선 후기의 학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한 집의 영업전(永業田)으로 하여 당의 제도처럼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도 퍼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곽우록-

- ① 역사의 흥망성쇠는 시세(時勢)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②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함으로써 기본적인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③ 부세를 완화하고 서얼 허통을 방지하며 호포제 실시를 반대하였다.
- ④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은데서 봉당이 생긴다고 보았다.

③ / 난이도 중

이익은 가호별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가 영업전을 설정하고, 그 영업전 내에 있는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게 하는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① 이익은 역사에서 고금의 흥망이 시세(時勢)의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시세→행·불행→시비(도덕)’ 순으로 보았다. ② 이익의 한전제 주장이다. ④ 이익은 관직은 한정되었는데 과거로 뽑는 예비관료가 많아져 먹이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봉당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문제해설>

③ 부세의 완화를 통한 농민(농업) 보호, 서얼 허통 방지 및 호포제 실시 반대로 엄격한 상하 신분제 유지 등을 주장하였던 것은 남인이었던 허목의 주장이다.

30.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이다.
- ②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이후 뤼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였다.
- ③ 윤희순은 의병들의 군자금을 모으고 다양한 의병가도 지었다.
- ④ 안창호는 19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② / 난이도 상

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내무부 산하의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였다(문제있는 지문임, 아래 참조). ③ 윤희순은 구한말~일제시대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며느리로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병 전쟁에 참여하여 싸웠던 인물로, <안사람 의병 노래> 등의 의병가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④ 흥사단은 안창호가 신민회 해산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계몽단체였다(1913).

<문제해설>

②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고, 체포되어 뤼순 감옥으로 이송된 후 사형을 언도받았다. 사형을 언도 받은 직후 한중일 3국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일심협력하여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고 동양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집필 계획은 ① 서(序) ② 전감(前鑑) ③ 현상 ④ 복선(伏線) ⑤ 문답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논책 완성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는 공소권을 청구해 그 기간에 집필을 마치려 하였다. 이를 안 일제 고등법원장이 논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라도 사형집행 일자를 연기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안중근은 공소권 청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① 서 ② 전감을 쓴 직후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집행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이 되고 말았다.

※ 문제점

①번 선지에서 1919년 4월에 수립한 정부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하이 정부)로, 상하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이승만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①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이의제기가 될 법한 내용이다.

31.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비들은 영조 때 노비종모법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② 부유한 상민들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 신분을 취득하여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 ③ 기술직 중인들은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달라는 대규모 소청운동을 벌여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 ④ 서얼은 왜란 후 시행된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여러 차례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 홍문관과 같은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③ / 난이도 중

조선 후기에 청요직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서얼층의 집단적 상소(소청 운동) 운동이 제기된 결과 철종 때인 1851년(신해허통)에 서얼들에 대한 청요직 진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기술직 중인들도 청요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운동을 제기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은 정부로부터 허용받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또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는 기술직 중인들이 아니라 서얼임을 주의해야 한다.

32. 다음과 같은 기본 강령이 제시되었던 개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 12. 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 14. 인물을 쓰는데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 ① 일본에서 박영효가 귀국하여 김홍집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다.
- ② 교육입국 조칙이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등이 제정되었다.
- ③ 궁내부가 실시되어 왕실사무를 전담하였다.
- ④ 상리국을 폐지하여 상공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③ / 난이도 중

제시문은 2차 갑오개혁(1894. 11~1895. 5)이 추진되고 있었던 1894년 12월에 고종이 갑오개혁의 큰 방향을 14가지의 규범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문서인 홍범 14조의 일부 내용이다. 이 문제는 2차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고 일본으로 망명했던 친일 정객인 박영효를 내각에 참여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수립되었고, 이 결과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② 2차 갑오개혁기에 교육입국 조칙(조서)가 발표되었고(1895. 2), 뒤이어 한성사범학교와 한성외국어학교 등의 관립학교가 설치되었다. ④ 1885년에 보부상단을 보호하는 특권적 조직인 해상공국이 폐지되고 상리국으로 개편되었는데,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1895년 3월에 자유 상공업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상리국을 폐지하였다.

<문제해설>

- ③ 1차 갑오개혁기에 왕실 사무 전담을 위해 궁내부를 설치하여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였다(1894. 6).

33.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경의선 철도 개통
- 나. 국채보상운동 전개
- 다. 덕수궁 석조전 완성
- 라. 신채호 「독사신론」 발표
- 마. 경부선 철도 개통

- ① 가-라-마-나-다
- ② 마-가-라-나-다
- ③ 가-마-나-라-다
- ④ 마-가-나-라-다

④ / 난이도 중

마-경부선 개통(1905) → 가-경의선 개통(1906) → 나-국채보상운동(1907) → 라-독사신론 발표(1908) → 다-덕수궁 석조전 완성(1910)

34.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미국, 중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하였던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 ② 소련이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시하여 미국이 이에 동의하였다.
- ③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
- ④ 3국은 임시 민주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③ / 난이도 중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회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어야 했다. 따라서 조선의 정부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영·소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3상 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 신탁통치 → 독립 정부 수립'이라는 과정으로 조선의 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문제해설>

- ①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인 것이다.
- ②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시한 것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다.
- ④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협의 단체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것은 3국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다.

35. 제헌국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약 4년간 유지되었다.
- ② 제헌국회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각각 선출하였다.
- ③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며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 ④ 제헌국회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국민주당이 가장 많았다.

④ / 난이도 중

① 제헌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52년 발췌개헌으로 수정되었다. ③ 제헌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 간선제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다. ③ 5·10 총선거에는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로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문제해설>

④ 제헌국회의원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7.5%로 다수였고, 한국민주당이 14.5%였다. 또한 정당 정치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무소속이 45.5%로 많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36.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났던 대통령의 집권시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UN)에 가입하였다.
- ②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③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④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① / 난이도 중

제시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② 부동산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7월에 시행되었다. ③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2월에 실시되었다. ④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에 그 동안 유보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 것이다(1995년 6·27 지방선거).

<문제해설>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김영삼 정부인 1996년에 가입한 것은 맞으나, 유엔 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9월의 사실이다(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37.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만 정권은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 ②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이다.
- ③ 6·25 전쟁 직후의 절실한 사회 단면을 파헤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 출간되었다.
- ④ 정부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이 없는 날’을 정하였다.

④ / 난이도 상

① 6·25 전쟁 시기에 보도연맹 사건(1950),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국민방위군 사건(1951) 등으로 국회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951. 11), 이어서 여러 보수 단체와 우익 청년 단체들을 규합하여 여당인 자유당을 창당하였다(1951. 12). ② 1952년 6·25 전쟁 중이던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③ 정비석이 서울신문에 연재하였던 소설 「자유부인」이 연재 완료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문제해설>

①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 소비를 줄이고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69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쌀이 없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점심때마다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여 혼식을 강제하였다.

38. 남북한의 통일 외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1년 5·16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등 통일 논의가 제기되었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서울·평양 간 상설 전화 개설에 합의하였다.
- ③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한다.
- ④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호혜평등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② / 난이도 중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과 북은 통일의 3원칙(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직통전화 가설 등을 합의하였다.

<문제해설>

①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평화통일론 등의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은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으나 5·16 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철저히 탄압받았다.

③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지향한다.

④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내정 불간섭, 상호간의 체제 인정 등이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호혜평등 문호 개방의 주장은 박정희 정부가 1973년에 발표한 6·23 선언에서 주장된 것이다.

39. 다음 연표 중 각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7차 개헌	8차 개헌	9차 개헌
㉠	(가) ㉡	(나) ㉢

- ① 가-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 ② 가-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 ③ 나-남북 적십자 본회담
- ④ 나-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

④ / 난이도 애매 --> 이의 신청 가능성 높음

제시문에서 7차 개헌은 1972년, 8차 개헌은 1980년, 9차 개헌은 1987년에 해당된다. ③ 남북 적십자 본회담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8월부터 1973년 8월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5월에 8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그 해 8월에는 9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결과 1985년에 최초로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③④번 모두 정답으로 보인다.

<문제해설>

①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는 8차 개헌의 내용이므로 (나)에 해당되어 틀리다.

②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 공비 사건과 더불어 1968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가) 이전에 해당하여 틀리다.

40.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 1.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ㄱ. 금강산 육로 관광
- ㄴ. 북한 합영법 제정
- ㄷ. 제2차 연평해전
- ㄹ.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 ㅁ.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 ㅂ.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신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① / 난이도 상

(가)는 1991년에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이고, (나)는 2000년에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일부 내용이다. ㄴ-1994년 10월 21일 북·미 간에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북핵 문제가 타결되었다(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1995년에 한·미·일 3개국이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문제해설>

ㄱ-금강산 육로 관광은 금강산 관광 지역에 숙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유람선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이 6·15 선언 이후 숙박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해로 관광이 중단되고 육로 관광으로 바뀌었다(2003).

ㄴ-북한은 1984년 선진 외국회사들과의 합영(합작회사경영)을 통해 외국기술의 도입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 신허영법으로 개정되었다.

ㄷ-1차 연평해전은 1999년, 2차 연평해전은 2002년에 발생하였다.
ㅁ-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다.

ㅂ-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정부 부처에 여성부가 설치되고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이 발표되었다.